



전북농협·새농민 전북, 2026 대의원 정기총회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지난달 28일 전북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지역 농업 발전과 청년농·후계농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새농민중앙회 이기성 사무총장과 김성훈 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새농민회 임원 및 시군 대의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년도 회계 결산과 2026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지역 내 새농민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변화하는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해 지원성과 주체성을 갖춘 새농민을 육성하고, 청년농·후계농 양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한강희 회장은 "농업·농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새농민 역시 보다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새농민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기술 혁신,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새농민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한 해도 농업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김제농협, 대보름 맞아 행복나눔 행사 진행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홀로 생활하는 조합원과 고령 조합원 가정을 위한 정월대보름 맞이 행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 돌봄과 상생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부랑민 농가 주부모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와 전달을 맡아 의미를 더했다.

김제농협은 65세 이상 홀로 조합원 및 고령 조합원 가정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70가구를 선정해 정월대보름 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전달 물품은 동부공 찰밥, 나물 반찬 2종 탕(국), 김, 부럼(명풍·호부) 등 정월대보름 음식과 장미구리로 구성됐으며, 회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따뜻한 시간을 함께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부랑민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월대보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정용 조합장은 "농가주부모임의 따뜻한 참여 덕분에 조합원 가정에 큰 위로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김제시, 위생 지도점검

김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와 관내 공공기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생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조리기구 및 조리실 위생 상태,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냉장·냉동 온도관리 적정성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조리환경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냉장고 문 손잡이, 칼, 도마 등 조리시설과 기구표면에 ATP(오염도측정기)세균수 측정을 통해 즉시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척·소독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3월에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등 조리·판매업소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점검 등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민원해결사’ 입지 재확인

김정흠 임실군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성황

임실군의원 김정흠 의원의 두 번째 의정활동 보고회가 지난 28일 임실농협 하나마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최근 선거 정국과 맞물려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날 행사에는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들을 비롯해 도의원·군의원 출마 예정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준비된 300석이 모두 가득 찼다. 행사장 안을 지리할 잡지 못한 참석자들은 뒤편에 서서 보고회를 지켜볼 정도로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보고회는 단순한 의정활동 성과 보고를 넘어 김정흠 의원이 지역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임실읍과 성수면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주민들의 오랜 민원 해결은 물론, 깨끗한 식수 공급 등 기본적인 생활 복지와 직결된 현안까지 꾸준히 챙겨오며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정흠 의원이 나서면 막혀 있던 일이 풀린다"는 평가와 함께, 현안을 끝까지 붙들고 해결하는 모습에서 '민원해결사'라는 별칭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주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라는



점에서 김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흠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김정흠 의원 후원회장 김경일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김 의원의 성과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정흠 의원 개인의 의정 성과를 넘어, 임실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자리였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정흠 의원은 앞으로도 군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작지만 절실한 문제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기대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노인복지관서 대보름 전통놀이 한마당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시 노인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1·3세대 통합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핵가족화로 점차 잊혀가는 정월대보름 세시 풍속을 직접 체험하고, 어르신(1세대)과 어린이(3세대)가 전통문화를 매개로 소통하며 미풍양속을 계승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춘몽 고고장구 봉사단'의 흥겨운 공연을 시작으로 △관장 인사말 △어린이 세배 △3세대 통합 민속놀이 대항전 순으로 진행됐다.

장진석 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 스마트파머’ 김현준 대표, 장학금 기탁

장수군 ‘청년 스마트파머’ 김현준 대표가 28일 장학금 100만 원을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고향으로 돌아와 첨단 농업을 일구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 지역사회의 미래인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장수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을 경영 중인 김현준 대표는 장수 지역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해 토마토 등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모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학생들의 학업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관리 분야 간담회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달 28일, 전북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2026년 감염병 관리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완료율 제고 △결핵환자 체계적 관리 △매개체 감염병 예방관리 △역학조사 완료기한 준수율 향상 △홍역 감시체계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주천면, 2026제1차 지사협 회의 진행

남원시 주천면은 지난달 28일 2026년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제1차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천면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는 우리동네 효자순, 건강체크 백세만세, 작은 큰꿈 운동화 상품권 지원사업을 포함해 총 10개의 사회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체 김영근 위원장은 "살기좋은 주천만들기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라고 전했으며, 노환순 주천면장은 "민과 관이 하나되어 서로 돕고 함께 나누는 주천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겨레하나, ‘2026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기관 선정

통일부 지정... 지역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바치

전북겨레하나가 통일부가 지정하는 202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전국 10개 기관을 2026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기관은 (사)전북겨레하나를 비롯해 숭실대학교, 동의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4곳이다. 재지정 기관은 아주대학교, 대구대학교, 단국대학교, 청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겨레하나 는 10개 기관 중 유일한 민간단체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전북겨레하나 는 2005년 설립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평화통일 교육·문화사업을 꾸준히 펼쳐 온 단체다.

특히 2016년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해 전문 강사단을

육성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10년간 11만여 명의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전북겨레하나 는 10년간의 교육 경험과 2022년 통일부 지정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북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맡게 된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가 제시한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공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 지역 평화통일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로서의 장점을 살려 지역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전북통일교육센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민·관 손잡고 재난 대응력 강화... 정읍시, 안전단체 간담회

정읍시가 지역 내 재난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달 27일 5개 주요 재난안전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만남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읍의용소방대 남부대원을 비롯해 여성민방위대, 자율방재단, 해병대전우회, 안전모터보사단 등 재난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청 재난안전과 직원 등 총 1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2026년 안전한국훈련과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등 재난 훈련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현장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상반면에 예정된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해 풍수에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훈련 당일 각 재난 단체는 침수 위험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주민 대피를 유도하며,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안전 이동을 도와 구호물품 배부 등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로 했다.

또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 가구를 돕기 위한 화재 안전 지원 사업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의용소방대는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해 필수 안전 물품을 전달하고, 소화기 사용법과 초기 화재 대응 요령을



교육하며 주택 내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민방위대는 올해 비상대비 훈련 시 주민 대피소 운영과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맡고 모든 단체가 매월 열리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동참해 생활 속 숨은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일수록 행정 기관과 민간 단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난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내장상동, 자전거도로 터널 인동덩굴 심어 녹지경관 조성

정읍시 내장상동 주민자치회(회장 김영수)가 지난 27일 지역 내 자전거도로 터널 구간에 인동초 300주를 심고 녹색 습터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내장상동 자전거 터널 구간은 평소 많은 주민과 자전거 이용객이 즐겨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이다. 하지만 그동안 다소 삭막한 경관 탓에 녹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8월 주민총회를 거쳐 '널쿨터널' 가꾸기 사업을 정식으로 의결했다. 그 결실로 이날 자치위원 15명이 현장에 모여 인동덩굴 300주를 식재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인동덩굴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다. 오는 5월에서 6월 사이 꽃을 피우며, 삭막했던 터널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그늘 습터로 탈바꿈시키고 마 을 경관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영수 회장은 "이번에 심은 인동덩굴이 자전거도로를 찾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 속 안전과 편의를 세심히 살피며 위원들



과 함께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장상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자전거도로 구간에 LED 조명을 설치해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 바 있다. 올해는 동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작은 영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는 등 앞으로도 주민의 삶과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